

# 간편결제 · 송금서비스 1240억원 돌파

하루 평균 역대 최고치 기록... 스마트폰 결제 전자지급 수단 대세로 자리잡아

3분기 간편결제·송금서비스 이용 한 금액이 하루 평균 1240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마트폰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하고, 돈을 이체할 수 있는 편리한 덕분에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인기를 끌며 전자지급 수단의 대세로 자리잡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일평균)'에 따르면 간편결제·송금으로 이뤄진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이용금액은 1241억원을 넘어 2분기보다 47.4%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374억원)보다 약 3.3배 이상 급성장한 것이다. 3분기 이용건수도 341만건으로 전분기보다 38.8%(95만3000건) 많아졌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 '토스(Toss)'와 '페이코(PAYCO)',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인 영향이다.

간편결제는 카드를 모바일에 저장해 두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서비스로 하루 평균 243만건과 762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 2분기보다 각각 30.1%, 34% 증가한 수준이다. 모바일에서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SNS 등을 활용해 송금하는 간편송금의 이용실적은 98만건, 480억원으로 각각 66%, 74%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유통·제조업 기반

업체가 온·오프라인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온라인 중심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업체들의 실적이 확대되면서 간편결제 이용실적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모바일을 통한 소액송금이 확산되면서 간편송금도 급성장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전체 전자지급서비스의 이용금액은 4854억원으로 지난 2분기보다 10%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용건수도 2352만건으로 전분기보다 6.3% 늘었다.

전자지급서비스는 선불전자지급, 직불전자지급,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 전자화해 등으로 구분된다.

보편화된 온라인 쇼핑 거래와 대입원서 접수 등 계절적 수요의 영향으

로 PG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PG는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결제정보를 송·수신해주고, 그 대가로 정산을 받는 서비스다.

3분기 PG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3401억원, 이용건수는 668만건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10.1%, 9.4% 증가했다.

간편송금 이용이 확대되면서 미리 일정금액을 충전해놓고 대금지급 등에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실적도 639억, 1540만건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21.1%, 5.3% 늘어났다.

한편 9월말 기준 전자금융업종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수는 172곳으로 2분기보다 7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지리산권 공동브랜드 '달고미' 탄생

경남 산청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50주년을 맞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원관리전략으로 지리산권 공동브랜드 '달고미'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동브랜드인 '달고미'를 지리산권의 청정이미지와 지역특산물의 상품성을 연계시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달고미'는 "달달하다, 달콤하다"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며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끼안고 있는 모습을 기본형으로 사과, 꿀, 꽃감, 고로쇠, 산나물 등의 특산물마다 응용 풍자가 개발됐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브랜드를 경남, 전북, 전남으로 나누어 있는 지리산지역의 공동브랜드로 사용함으로써 지리산권 5개 시·군과 협의해 각 시·군에서도 이 브랜드를 사용하



고, 기존의 시·군 브랜드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시·군과 '공동브랜드 위원회'를 구성해 달고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특산물을 선정하고, 각 특산물에 맞는 캐릭터 응용동작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지역과 상생 · 협력 주력

식품연구원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중심에 설 것"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한국식품연구원이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20일 한국식품연구원은 박용곤 원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아시아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위해 한국식품연구원이 중심에 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9월 원주군으로 이전한 후 세계농식품시장 성장세와 첨단 농생명산업의 경쟁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식품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민간 기술개발 역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농생명융합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연구원은 농생명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북을 중심으로 농식품·바이오 연구역량을 융합·연결하는 기업 수요지향형 R&D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 네덜란드 푸드밸리의 핵심 성공요인은 기업R&D 수요를 충족시킨 와계농대 대학의 사례를 접목, 식품기업과 농식품 산업의 동반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연구원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북지역 각 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전북도가 주재하고 있는 전북상생협의회에 참여해 협력 방안을 논



의하고 있으며 전주시와 익산시, 고창군, 원주군, 우석대학교, 전북첨초경제혁신센터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원주군으로 이전을 시작한 이후 49개 지역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연구사업 재료 구입 등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가산점을 부여해 전북출신 인재 등용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계에 필요한 식품기술과 사업기획을 추진에도 주력하고 있다.

무주지역 머루주와 천마가공품, 순창지역 수출용 소스, 정읍지역 녹차 가공품, 완주 차·청국장 등 101건의 기술지원이 이뤄졌다.

식품연구원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신청사 건설비 720억원 등 735억원에 육박하는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창출돼 식품연구원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김민근 기자



## 전북은행, '대통령 표창' 수상

일자리 창출 정부포상서... 일자리 대책추진 주도 성과

전북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7년도 일자리창출 유공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일자리창출 유공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개인(사업주, 연구자 등)과 단체(기업, 대학, 협회 등)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실적과 일자리 제도 및 질 개선,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전북은행은 국가적 관심사인 청년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각종 일자리 대책추진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 진흥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전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고용창출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실제 전북은행은 2014년 15명, 2015년 22명, 2016년 33명, 2017년 29명으로 정규직 채용을 꾸준히 늘려왔다. 최근 2년간 총 92명의 대학생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은행 임용택 행장은 "전북은행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날이 계획"이라며 "고용제도 및 근로환경개선 등을 통해 무엇보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통시장 활력 찾기 일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올 한해 전북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과 사업추진 성과를 자체 점검하는 자리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렸으며,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지역 전통시장 활력 찾기에 일조한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양한 전통시장 사책 추진 영향 등으로,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온누리상품권의 판매액이 568억원(2017년 11월말)으로 전년 동기(517억원) 대비 10%(51억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17년 전국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했음에도 전북은 판매액이 증가하는 고무적인 상황을 내다봤다.

연말까지 이러한 추세를 전북은 최초발행 판매가 시작(2009년 7월)된 이후로 처음으로 판매액 600억원 달성까지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공모사업의 시장경영혁신사업 중 가장 핵심인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신청시장 발굴부터 전국심사 대비까지 전라적인 접근과 노력으로 일찌 사업들이 전북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전국 17개 시도(세종·제주 포함)에서 26곳 시장이 신청해 7곳을 선정(경쟁률 3.7:1)한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은 전북에서 1곳이 선정(부안상설시장, 3년간 25억원 지원)되었으며, 전국에서 102곳 시장이 신청해 62곳을

선정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전북에서 4곳이 선정(1년간 6억원)되었으며, 이는 경기(10곳), 서울(9곳), 경북(7곳), 인천(5곳)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시장이 선정되었다.

명절(설, 추석)을 맞이해서는 대형마트의 동반상생 협조 등을 통해 민관합동(200~230여명) 합입으로 도내 6개 시(市) 곳곳(대형마트 앞 등)에서 동시다발 대규모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및 전통시장 이용" 현장 캠페인과 고객들의 전통시장 유인 및 지역 기관·단체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 동참 붐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시설현대화 부문에선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크게 증액(전년 대비 279%증)되었으며, 2016년 사업으로 진행된 청년몰 조성사업 2곳이 성공적 오픈으로 정상 운영 중이고, 전통시장에서 점심하는 날 운영도 평가을 연속으로 우수지방청(4곳)에 선정되는 성과 등이 있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내년에도 여러 전통시장 사업들이 전북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라북도 전북농협

# 자연의 건강한 미소

##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